

언어유형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어는 교착어, 붙어는 굴절어라는 것의 의미를 묻다

목정수
(서울시립대학교)

1. 서론

1.1. 문제제기

현재 우리—한국어를 모어로 하고 있는 사람들—가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는 언어학이란 학문은 일종의 근대학문으로서 주로 서구에서 유입되었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학 논의의 주된 흐름이 서구어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땅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본 논의는 출발 자체부터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본고는 일단 적어도 이러한 진단/판단이 유효하다는 가정 하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3000~5000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 우리 한국의 언어학자가 언어학 논의의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십 개 정도를 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수동적인/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한)국어학은 보편적인 인구어학 중심의 언어학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크게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역으로 능동적인/부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어의 특이성을 세계 언어학계에 알리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강요(?)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학문 환경의 문제

【Keywords】 agglutinative language, inflectional language, closed/open minded, comparison, typology, topology, subjechood/subordination, central/marginal

와 누구의 시각에서 특이성이냐라는 언어학 주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한국어 자체의 특이성도 중요하지만, 본고에서는 언어학 논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자료와 그에 대한 언어적 직관의 기묘함(bizzarerie) 또한 특이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고, 제기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왜 ‘?그건 나도의 책임이다’, ‘?철수가 미희에게 영희의 소개(를)했다’, ‘*그 사람 사장 아니다’, ‘?코끼리가 코가 길다’, ‘?철수가 영희가 동생이 보고 싶다를 두고 소위 언어학적 논의를 하는가 하는 메타적인 시각에서 우리 언어학적 논의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¹⁾ 이와 같은 언어자료를 두고 ‘나는 직관에 맞다’, ‘나는 비문법적이다’ 등등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만 논의를 국한시키지 말고, 왜 그러한 자료에 대해 ‘나’는 또는 ‘나’는 그러한 직관을 얘기하는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혹은 정치(언어학)적 지형과 같은 측면을 따져 보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제기가 언어학적 논의의 한 흐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까지 서로 공유될 수 있다면, 한국에서의 언어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 언어학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달리 표현해 보자. 한국어라는 특수한 특이한 언어를 인국어 중심의 언어이론의 보편성을 입증하는 방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 또는 언어이론의 보편성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어에 맞는 여러 매개변수(parameter)를 고안하는 논의가 많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쯤 되면, 언어이론이 앞서고(=선행적이고), 한국어라는 자연언어/개별언어가 경험적으로 뒤따르는(=종속되는) 구조에 편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한)국어학계에서 주로 서구—특히 미국—에 나가서 한국어학을 공부한 언어학자들이 걷는 노선과 상당 부분 일

1) 여기서 든 예문은 필자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기존 국어학, 언어학 논의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실례들을 밝힌다. 문법성 판단의 표시인 ‘*’, ‘?’도 각 논자가 붙인 것이지, 필자가 한 것이 아니다. 여러 문제로 그런 자료를 다루고 있는 논의들의 명세서를 작성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실 관계만은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할 듯하다.

치하는 것 같다. 이러한 인식론적 성찰의 지점에서 반성해 보면, 세계 언어의 계통론적 분류나 유형론적 분류의 상당 부분이 인구어 중심이라는 점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계통적 분류와 유형론적 분류를 혼동하는 측면도 있음을 깨닫게 된다. 국어학, 언어학 논의에서 ‘국어의 활용어미’, ‘일본어의 격어미’, ‘굴절어인 영어의 경우에 있어서’ 등등의 표현을 종종 마주치게 되는데, 이런 표현 자체 또는 이런 표현에 담겨있는 속뜻이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한다.

다른 한편,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것이다. 특히 생성문법이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 이래로, 한국 언어학계—특히 국어학계—에서는 한국어를 영어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론에 무리하게 맞추려는 과정에서 한국어의 주된 특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지적되면서, ‘(한)국어는 국어로서/국어학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세(勢)와 동의를 얻어가고 있는 것 역시 분명하다. 이러한 조류는 다음의 몇 가지 용어의 사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국어는 교착어이다’, ‘활용어미는 국어와 맞지 않는다’, ‘국어의 교착소를 설정해야 한다’, ‘국어의 형용사는 관형사와 더불어 특징적이다’ 등등.) 간단히 다음과 같은 논문의 제목만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쉽게 드러난다. “釋譜詳節의 國語學的 研究”, “《老乞大》와 《朴通事》의 諺解에 대한 國語學的 研究”라는 박사학위 논문의 영문 제목은 각각 다음과 같다. “A Philological study of Sokposangjoi”, “A Study of the successive Korean-Translations of Noguldae and of Baktongsa”. ‘국어학적’이란 용어는 문학적 접근, 역사학적 접근, 철학적 접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채택된 용어라고 하더라도, 그 ‘국어학적’ 자체에는 정서적 호감 이외에는 그리 중요한 독자적인 의미가 서려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2) 임흥빈(1997), 이익섭·이상익·채환(1997) 등 참조

3) 이 글은 2003년 6월 21일에 ‘한국에서의 언어연구 그 현주소를 묻는다’를 주제로 해서 가졌던 국제언어인문학회 2003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한 글을 집고 더한 것이다. 그 때,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김영옥, 시정곤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전

이러한 시각들은 (한)국어학의 종속성을 탈피하여 주체성을 회복하자는 주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그럴듯한 인상을 주고 속에서 뭔가 민족적인 그 무엇이 용솨음치게 만드는 매력적인 언술로 다가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국어학적 연구”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텅 비어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에 빠지게도 된다. 일차적으로는 “국어학적”이란 용어의 소통가능성과 통보력의 문제가 있다. 그것을 외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혹은 한국어면 한국어, 영어면 영어 등등의 개별어에 대한 인식이 그 자체만을 보고 그 자체만에 맞는 고유의 방법론을 개발하여 연구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정확하게는 ‘서지학적 연구’, ‘어휘론적/문법적 연구’로 되거나 보편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언어학적 연구’로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 밖에, ‘국어 통사적 접사’, ‘명사-형용사 유형의 언어’, ‘동사-형용사 유형의 언어’ 등의 용어/개념을 통해 (한)국어의 고유성을 보이려는 시도들⁴⁾ 그 자체의 내적 모순 또는 그럴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러한 인식도대가 보편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 늘 반성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개념의 새로움은 더 나아가 서구어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1.2. 논의 목적

본고는 위와 같은 (한)국어학이 처한 시대적 정황을 나름대로 ‘종속성’과 ‘고유성’의 두 가지 특성으로 정리하고, 양쪽을 똑같이 반성하고, 새로운 작업 거리를 찾아보는 시도가 가능한가에 대해 토론하고 그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고는 한국에서 언어학을 한다는 고립성과 국제화라는 시대적 개방성의 상호교차 지점에서 언어학 논의를 인문학의 일반 논의에 뒤쳐지지 않게 하고, 언

한다.

4) 임흥빈(1989), 시정곤(1998, 2002), 홍제성(1999) 등 참조

어학의 인문학적 향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한)국어학의 이러한 독립성, 고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관계(relation), 통합(integration), 계면(interface), 전체성(totality), 개방성(open-mindedness), 잡종(hybrid), 허브(hub), 그물망(network) 등의 인문학적 담론이 지향하고 있는 전체적인 방향과는 반대로 (한)국어학의 폐쇄성, 자족성으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하여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서는 한국어의 유형론적 분류를 위해서 한국어 분석 자체에 담겨져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한국어 문법 기술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보편적인 가치와 그 한계를 따져보는 기초적인 ‘지식고고학적/계보학적 물음’을 던진다. 이러한 물음이 언어학계에 널리 공유되어 활발하고 창의적인 논의의 바탕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아울러 필자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대상언어로서의 한국어는 그 자체로서 (by/for itself) 연구될 경우보다, 오히려 외국어와의 평등한/동등한 비교·분석 작업을 통해서 훨씬 그 모습이 잘 드러난다는 입장에서, 한국어와 불어의 문법요소들을 비교해 보고 그 비교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것이다. 여기서의 비교 작업은 한국어와 불어의 어휘가 아닌 문법요소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 한국어의 조사·어미로 대표되는 문법요소들의 분포 조사가 철저해야 된다는 것과 그 해석의 상이성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전체 조건이 따라붙는다. 유사한 방식으로, 불어의 경우 역시 전통적인 문법용어에 의해 가려진 불어 고유의 특징을 문법요소들의 행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냥 우리가 배워서 아는 외국어로서의 불어와 철저히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재인식된 불어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표기법과 같은 변수에 의해 자칫 왜곡되기 쉬운 부분들을 고려하여, 논리(logos) 중심적인 언어분석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한국어와 불어의 비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발생한 오류들을 지적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결국에는, 계통적으로나 유형론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기술/분류되었던 한국어와 불어의 비교 가능성이 어느 지점에서 성립되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지점은 바로 한국어를 ‘굴절적 성격의 교착

어'로, 불어를 '교착적 성격의 굴절어'로 인식하는 위상학적 공간 속이 될 것이다.

2. 언어사실과 그 분석

2.1. 한국어와 불어 문법의 해체

앞에서 우리는 한국어와 불어의 문법요소들이 평등하게 비교 분석되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 자체를 일정한 기준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기존 해석 체계를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언어사실을 밝혀야만 한국어와 불어를 비교하는 행위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검증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한국어와 불어에서 명사라는 어휘요소를 중심으로 그 어휘가 실현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단지 '분포'라는 기준 하나만을 가지고 기술해 보고, 그를 바탕으로 어떤 형상을 끄집어내어 비교할 수 있는가를 제시해 보겠다.

2.1.1. 명사의 문법(=조사 체계의 해체)

먼저 한국어와 불어에서 명사가 문법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의 깊이를 재어 보기 위해서는, 주어진 명사가 이웃하고 있는 다른 어휘—명사든 동사든 관계없이—사이에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명사가 확장되는 구조를 어떤 관점에서 분석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이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관찰·기술하고 그에 기반하여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이 전제될 때만이 불어와 한국어, 두 언어의 대등한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칫 잘못하면, 기존 각 언어를 기술하는 데 동원된 용어나 선입견에 이끌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어 문법에서는 '조사'라는 용어로 문법요소를 명칭하고 있고, 불어 문법에서는 '전치사(preposition)', '관사

(article)’라는 용어로 문법요소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처음부터 무리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치사’, ‘관사’, ‘조사’라는 명칭에 얽매이지 말고, 그러한 명칭을 부여받은 요소들의 자리(=위치)와 기능을 따져보고 요소와 요소간의 비교가능성이 있는가를 모색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불어, 한국어 자료와 실제 분석을 알아보자. 라틴어의 종합적 성격이 쇠퇴하면서 분석적 언어가 된 불어에서 명사는 관사와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 문법적으로 실현되게 되었다(목정수(1989) 참조). 이에 따라 관사를 비롯한 한정사 부류의 쓰임 여부에 따라 미세한 의미차가 드러난다. 불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나 특히 외국어로서 불어를 배우는 화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상당히 습득의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이와 비견될 수 있는 범주가 해당 모어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어를 비롯한 알타이제어에서는 관사의 부재가 특징의 하나로 부각되어 왔다.⁵⁾ 그러나 ‘관사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더불어, ‘관사’라는 명칭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언어 사실을 다시 기술하고 분석했을 때, 과연 그 결과가 예전부터 주어졌던 인식과 동일하게 드러날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먼저, 불어의 명사의 분포 환경을 총체적으로 기술해 보자. 다음은 논리적 양화사, 부사—*seulement, justement, tout à fait, alors* 등등—를 제외하고, 명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문법적 요소들의 총체를 보여주는 예문들이다.⁶⁾ 이해의 도움을 주기 위해 가장 구조적으로 유사한 한국어 번역을 괄호 안에 달았다.

(1) a. Je vais le tuer, Paul. (그 새끼 없애 버릴거야, 철수)

5) 그러나 한국어와 유형론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교착어로서 바스크어 등에서는 문법 기술에 있어, 분명히 ‘관사(article)’이란 범주가 설정되어 있다(Laka Itziar(2001) 참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6) 물론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나 관계절 구조는 명사의 형상(form)에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본 논의에서 빠짐은 당연하다. 즉 불어에서는 명사 왼쪽에 나타나는 요소만이 문법적으로 중심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뒤에서 보겠지만, 한국어는 이와 정반대의 형상성(configurationality)을 보여준다.

- b. Combien t'en as, d'enfants? (몇이나 되니, 자식은?)
- c. Je voudrais parler à M. Martin. (김선생님하고 통화할 수 있습니까?)
- d. Mes enfants, ils vont à la campagne en voiture. (아이들은 시골에(는) 차로 가요)
- e. Une étude de la linguistique (언어학(의) 연구(가))

위의 예에서 보듯이, 어떤 명사이고 간에, 명사 왼쪽에 다른 어휘가 나타나기 전까지 실현될 수 있는 문법적 요소는 전치사류와 한정사류가 전부이다. 이들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표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여기에서는 명사의 실현 층위가 한정사류와 전치사류의 두 층위에 걸쳐 일어난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확인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는 어떨까? 명사가 문법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 먼저 주어진 명사의 문법적 실현 환경을 살펴보자. (2i)에서 보듯이, 주어진 명사의 왼쪽에는 상당히 많은 수식어구가 붙을 수 있다. 수식어구 사이에 순서 제약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의미 관계만 유지되면, 수식어구는 자유롭게 붙지만, 결국 그것은 명사의 의미 내용을 수식하는 선에서 그치고 해당 명사가 문법적으로 다른 어휘와 맺는 관계는 그 명사 뒤에 붙는 문법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한국어 명사구의 핵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명사 앞의 요소는 사상(捨象)시키고, 후행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 (2) a. 너, 학교 안 다닐 거니?
- b. 오랜만에 학교에 가 봤더니, 많이 변했더라구.
- c. 네 형편에 대학교엘 어떻게 다녀?
- d. 김철수가 말입니다 매일 저기 학교 말입니다 빼먹고 놀러만 다니는데 말입니다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 e. 학교가요 뭐 간다고 가지겠어요?
- f. 그렇게 공부하려면, 학교에는 뭐 하러 다니냐 이 놈의 자식이?
- g. 우리 아들이요 이제 학교도요 가고요, 수영장도 다니고요, 좋아 죽겠나 봐요!

- h. 저 치가 우리 학교 영어선생이여.
- i.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본 대학교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목정수(1998, 2002) 등에서 여러 차례 밝혔듯이, 한국어 명사구의 필수적 핵심 구조는 두 층위로 파악된다. 명사와 다른 어휘—주로 명사나 동사—와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문법요소가 실현되는 자리가 그 첫째 층위이고, 그 명사를 화자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결정해 주는 즉, 명사의 외연범위를 한정해 주는 문법요소가 실현되는 자리가 그 둘째 층위이다.⁷⁾

이상에서 관찰한 바 그대로 구조적으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불어의 경우를 보자.

- (3) a. Il y a Φ_1 un grand parc à New York, qui s'appelle "Central Park".
- b. Je vais aller au Japon en Φ_2 avion.
- c. chien du berger - chien de berger

다음은 한국어의 경우이다. 문법요소들의 실현 양상은 두 자리만 설정하면,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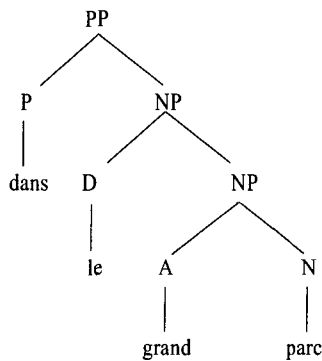
- | | | |
|---------------------------------|-----------------------------|----------------------------------|
| (4) 학교- Φ_1 - Φ_2 가다. | 학교- Φ_1 - Φ_2 크다. | 학교-의- Φ_2 책. |
| 학교-에- Φ_2 가다. | 학교- Φ_1 -는 크다. | 학교- Φ_1 -의 책. ⁸⁾ |
| 학교- Φ_1 -를 가다. | 학교- Φ_1 -가 크다. | 학교- Φ_1 - Φ_2 선생. |
| 학교-에-를 가다. | 학교- Φ_1 -도 크다. | 학교-와- Φ_2 선생님. |

7) 위의 예문에서 명사 뒤에 나타나는 {요, 말입니다} 등의 요소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층위인데, 여기서는 불어와의 비교의 편의를 위해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이들 요소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목정수(2003)을 참조하기 바란다.

8) '학교의 책'의 경우, 분석 가능성을 '학교- Φ_1 -의 책'과 '학교-의- Φ_2 책'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조사 {의}의 지위 규정과 관련되어서는 별도의 논의가 요할 정도로 복잡하다. 다만, 현재 필자는 전자 '학교- Φ_1 -의 책'의 구조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만 밝히고자 한다. 목정수(예정)을 참조할 것.

이러한 구조 기술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명사구 확장 체계를 시각적으로 표상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 온 수형도의 심층구조이다. 목정수(2000)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생성문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 나무그림의 문제점을 형태와 의미의 관점에서 비판한 적이 있다. 생성문법의 DP 구조 설정 논의와 별개로, 일반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점이 문제일 수 있는가를 제기한 것이었다. 자세한 논의는 목정수(2000)으로 돌리고, 그 핵심만을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 나무그림의 문제점은 형태와 의미 중 중심을 삼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형태와 의미의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두 결합요소의 합을 표시하는 노드 명칭 NP, PP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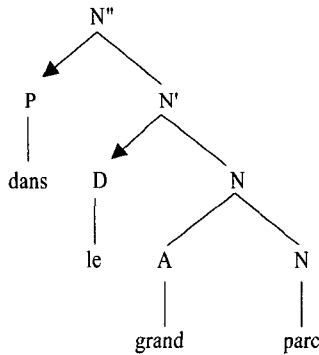
◇ 전통적 나무그림의 문제점: 형태와 의미 중심의 혼재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목정수(1998)에서부터는 전통적인 수형도가 갖고 있는 시각적 조형미를 최대한 살리되, 언어구조의 진실성을 좀더 일관되게 보여 줄 수 있는 표기 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전통적인 나무그림에 비해 언어를 움직이는 실체로서 파악하고, 현상 이면에 숨어 있는 시간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림을 수형도의 위계와 벡터의 방향성을 응용해 고안해 본 것이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목정수(2000)로 돌리고, 다만 이 그림을 통해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문법 기술의 일관성을 의미(=어휘요소)가 아닌 형태(=문법요소) 중심으로 이끌어내고자 한다는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우리의 나무그림: 어휘(=의미) 중심에서 문법(=형태) 중심으로의 일관성



2.1.2. 동사의 문법: 어미분석을 중심으로

앞 절에서 우리는 명사구 확장 구조를 통해, 불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언어간에 모든 것이 일대일 대응관계를 갖는다고는 말하기가 어렵지만, 그 형상의 유사성은 분명히 드러날 수 있었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보강하기 위해, 명사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동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법적 실현 양상에서도 두 언어간의 유사성을 도출해낼 수 있는 언어현상들이 찾아진다는 점을 보이도록 한다.

2.1.2.1. (보)조동사 구성

여기서는 보조동사의 본질과 외연에 대한 천착 없이, 보조동사로 기술되어

오고 있는 요소들의 결합관계에 있어서 드러나는 평행관계만 주목하기로 한다. 다음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불어와 한국어는 그 결합의 방향성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결합의 원리에 있어서는 아주 유사하다. 동사 ‘춤추’에서 ‘춤추고 싶지 않았었’까지 오른쪽으로 확장되어 가는 조동사 구성의 모습과 동사 ‘danser’에서 ‘ai pas eu voulu danser’에 이르기까지 왼쪽으로 확장되어 가는 조동사 확장 구조의 모습이 대칭적이다.

(나) 너하고 춤춰.	Je danse avec toi.
(나) 너하고 춤추고 싶어.	Je veux danser avec toi.
(나) 너하고 춤추고 싶었어.	J'ai voulu danser avec toi.
(나) 너하고 춤추고 싶지 않았어.	J'ai pas voulu danser avec toi.
(나) 너하고 춤추고 싶지 않았었어.	J'ai pas eu voulu danser avec toi.

2.1.2.2. 불어의 인칭대명사와 한국어의 종결어미: 인칭성과 정감적 의미

바로 앞 절에서 우리는 보조동사의 확장 구조를 논할 때, 한국어의 마지막 위치에 놓이는 소위 종결어미 ‘아/어’와 불어의 인칭대명사 ‘je’는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이 요소들을 각각 ‘종결어미’와 ‘인칭대명사’로 부르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탈피한 상태에서 다시 이들 요소를 살펴보면, 우리는 새로운 점을 말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불어의 인칭대명사 ‘je, tu, il’은 이름이 말해주는 대로 ‘명사성’이 없는 문법요소이다. 흔히 접어(clitique)이라고 불리는데, 이 약세형 인칭대명사는 라틴어의 인칭, 수, 시제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활용어미가 보여주는 행태와 기능 면에서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 다만, 그 물리적 실현 위치만 동사 앞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목정수(2003)에서는 불어의 이러한 인칭대명사를 ‘굴절 인칭대명사’로 부르기를 제안하고 있다.⁹⁾ 이러한 인

9) 인칭대명사의 언어적 속성에 대해서는 목정수(2003)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참조하기 바란다.

칭표지인 인칭대명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대화 구조는 다음과 같이 짜여진다. ‘2(너)-1(나) 인칭’의 짝과 ‘3(그)-3(그) 인칭’의 짝이 대화의 기본을 구성한다. 이는 어떤 언어든 어떤 시기든 관계없는 보편적(universal)/범시적(panchronic) 사실이다.

- (5) a. T'as faim? Oui, j'ai faim.
b. Il a froid? Oui, il a froid.

- (6) a. (너) 춥니? (응, 나) 추워.
b. (저놈) 춥대? (응, 재) 춥대.

불어의 인칭대명사의 문법적 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놓고 보면, 세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한 가지 사실만을 적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한다. 그것은 불어의 ‘tu, je, il’을 단순히 인칭대명사로 부르게 되면, 그 비교의 대상을 한국어의 인칭대명사 {나, 너, 그(놈/년)}로 잡게 되어, 흔히들 인구에 회자되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어지게 되는 구조를 낳는다는 점이다. ‘pro-drop’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국어에서 설정되고 있는 ‘zero pronoun’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한국어를 ‘null-subject language’라고 할 때 과연 주어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한국어를 ‘context-sensitive language’, ‘topic-prominent language’라 하는데 그 근거는 확실한가?

불어나 영어의 ‘il, he’를 한국어의 {그}와 대응시키는 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인구어 대명사 해석의 기제—예를 들어, 생성문법의 결속이론 등—를 한국어에 적용시켜 보려 한다. 그러나 그 기제를 밝히기 이전에 취급하는 예의 부적격성이 눈에 띈다. 다음 예를 보자.

- (7) a. When he was young, my father used to go fishing in the river.(cataphoric O)
b. My father likes music. He is a good singer.(anaphoric O)
(8) a. 선생님이 들어오고 나서, 그(분)은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anaphoric X)
b. 그가 들어 왔을 때, 선생님은 강의를 계속했다. (cataphoric X)

(7)에서 대명사의 전방조응(anaphora)이나 후방조응(cataphora) 관계가 성립한다고 해도, (8)에서는 그 해석의 성립 자체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인구어의 대명사와 관련되어, 그 대응 예를 어휘적 요소로 잡게 되면, 인구어 대명사의 문법적 성격이 가려지게 되므로 자칫 잘못된 비교를 범할 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일본어와 비교해 봐도 그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9)에서는 인칭대명사가 관계절의 핵명사(head noun)로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고, (10)에서는 의미적 소유관계가 인구어의 소유형용사처럼 표현되었을 때 얼마나 어색하고 그 수용성이 떨어지는 작례가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

- (9) a. 忙しい私はテレビも見られない。
 b. 音楽が好きな私は一日中音楽を聞いている。
 c. 若いあなたにはまだ分からないでしょう。
 (10) *私は私の部屋で私の友だちと話していた。
 *あなたは昨日あなたの部屋であなたの友だちと何をしていましたか。

2.1.2.3. 선어말어미 {-시-}와 인칭 대명사

한국어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존대법의 발달이다. 여기서 우리는 존대 요소 {시}를 사회언어학적으로 규명하여 동양 전통의 유교적 이데올로기와의 상관성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다.¹⁰⁾ 존대법이 한국어에만 나타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한국어의 존대요소 {시}를 지시적 기능으로서의 언어학적 분석에 입각해 볼 때, 인구어의 어떤 요소와 대응관계를 찾을 수 있는가를 따져보려 하는 것이다. {시}가 상대방을 직접 높일 수도 있고 상대방과 관련되어 있는 대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바로 {시}가 지시하는 대상에

10) 존대법을 장유유서 등의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반영물로서 파악하는 사회언어학적/인종주의적 분석은 마치 인구어의 성(gender) 구분이 남녀 성차별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게 한다. 어느 한 쪽은 맞고 다른 쪽은 틀리다는 것에 관계없이 논리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함의한다.

따라 사용여부가 정해진다는 것이고, 이는 바로 {시}가 청자 지시의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지시적 기능은 인구어의 경우에 인칭대명사 ‘vous’나 여성형 인칭대명사 ‘Sie’등으로 표현된다. 다음 예를 비교해 보자.

- (11) a. Quoi t'a fait? 뭐 했어?
 b. J'ai fait du sport. 운동 좀 했어.
 (12) a. Quoi vous avez fait? 뭐 하셨어요?
 b. Nous avons fait du sport. (저) 운동 좀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게 되는 문법요소들의 대응쪽은 다음과 같이 도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Vous=(당신/X-님) 시, -ez=(시)너니까?/어요?

2.1.2.4. 간접목적어 대명사와 {-어 주다/-어 드리다} 구성¹¹⁾

불어의 인칭대명사의 여격형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해석을 후치사구 ‘X에게’에 맡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불어의 경우에는 그 인칭대명사가 접어 (clitique)의 성격이 강함을 상기할 때, 한국어에도 이러한 문법적 요소로 그 대응형이 찾아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다. 전체 내용으로 보아, 이 문제를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대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의 경우에 소위 보조동사 구성 ‘어 주다’ 구성은 그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¹²⁾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성이 문법적 요소가 나타나는 자리라는 점이다. 즉 인구어의 여격형이 담당하는 것은 여격보어구 ‘X에게’가 아니라 보조동사 구성 ‘어 주다’에 의존한다. 전자는 수

11) 본질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별도 목정수·유현조(2003)을 참조하기 바란다.

12) 구현정(2003) 참조.

의적인 어휘적 성격의 요소이고, 후자는 필수적인 문법적 성격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예에서 보듯이, (14a, 15a)보다는 (14b, 15b)가 훨씬 자연스럽고 한국어다운 표현법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 (13) a. Tu veux que je te montre ma nouvelle robe?
b. Viens voir les photos, je vais te montrer le garçon que j'ai rencontré en vacances.
- (14) a. 나를 도와.
b. 도와 줘.
- (15) a. 저에게 보이시겠어요?
b. 보여주시겠어요?

2.1.2.5. 피동법

한국어에서 피동법과 관련된 논의는 형태적으로 ‘이, 히, 리, 기’ 접사에 의한 형태론적 피동 구성과 ‘어 지다’ 등의 통사적 피동 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전성기(2002)에 의하면, 인구어의 수동표현에 가장 잘 대응되는 구문의 유형은 위의 형태론적 피동구성이나 통사론적 피동구문이 아니라, 주어와 목적어의 어순 도치에 의한 구성—물론 여기서 주어나 목적어가 어떤 조사로 실현되는지가 중요하지만—이 된다는 사실이다.

- (16) a. La lettre a été envoyée par Pierre.
b. 편지는 피에르에 의해 부쳐졌다.
- (17) a. Pierre a envoyé une lettre.
b. Pierre a envoyé la lettre.
c. Une lettre a été envoyée par Pierre.
d. Cette lettre-là a été envoyée par Pierre.

- (18) a. 피에르는 편지를 보냈다.
 b. 피에르가 편지를 보냈다.
 c. 피에르가 편지 보냈다.
 d. 피에르가 그 편지 보냈다.
 e. 편지를 피에르가 보냈다.
 f. 그 편지는 피에르가 보냈다.
 g. 편지는 피에르가 보냈다.

전성기(2002:11)는 원문의 환원문들과 낱말이나 구문 혹은 번역 단위 차원의 환입과 환치를 통한 대조분석, 이렇게 추출된 변별적 의미를 역문이 제대로 재현했는가 확인하기 위한 역문의 환원문들과의 대조, 그리고 이들과 원문의 환원문들을 교차대조하는 ‘삼중의 대조분석’에 의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즉 (16a)를 (17a-d)와 비교하고, (16b)를 (18a-g)와 비교해 보고, 이들을 교차대조해 보면, (16a)의 적절한 번역은 ‘편지는 피에르가 보냈다’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삼중대조분석’이란 것은 번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어의 피동구문에 이끌린 소위 한국어 피동구문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재반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어의 경우에 피동법의 전형은 어순—정확한 표현으로는 성분의 순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한편, 한국어에서 피동접사 ‘이, 히, 리, 기’가 파생시킨 피동사의 구성은 인구어적인 피동의 의미가 아니라 ‘가능’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피동사 구성은 불어의 대명동사(verbe pronominal)의 구성과 비교가 가능하다.

- (19) a. 저 건물 보이니? Tu vois ce bâtiment-là?
 b. 문이 잘 안 열린다. Je peux pas ouvrir la porte.
 c. 문은 잘 안 열리지니? La porte s'ouvre bien?

2.1.2.6. 접속절 구성과 접속어미

이 절에서는 불어의 접속사(구)와 한국어의 접속어미를 형태분석했을 때, 그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한국어에는 접속어미가 상당히 발달하였고 불어에는 접속사가 있지만 접속어구나 의존명사의 범주가 없는 식으로 기술되는 것의 맹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다음의 예를 비교해 보자.

- (20) a. C'est vrai que tu es heureux que je vienne?
b. Au fur et à mesure qu'il lisait, il comprenait de moins en moins!

- (21) a. 밥을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쩌요.
b. 저놈은 밥을 먹을 때에만 조용해.
c. 밥좀 먹겠는데 왜 지랄들이야.
d. 내가 새라면(은), 그녀에게 날아갈 수 있을텐데.

(21)의 '-는데도', '-을 때에만', '-겠는데', '-라면(은)' 등을 '접속어미'로 규정하는 관례에 따르면, 한국어에는 이와 유사한 어미류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류의 '접속어미'들은 더 작은 형태 단위들의 복합체임을 형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한편, 불어의 복합 접속사들도 그 형태를 분석해 보면, 이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차이란 것은 하위요소들의 결합순서와 방향성뿐이다. 이를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22)는 이 표의 구체적 예의 일부이다.

←-(<부사/양화사>)+<전치사>+<지시사>+<추상명사>+<보문자>+<인칭/법/시상>V--

--V<인칭/법/시상>+<보문자>+(<의존명사>)+<후치사>+<질화사/한정조사>--→

- (22) a. parce que, (de ce) que, puisque, après que, au fur et à mesure que, malgré que ...

b. -는데, -음에도 (불구하고), -는데도, -은 후, -기 전에 ...

2.1.2.7. 불어와 한국어의 접속법(mode subjonctif) 체계

Guillaume(1929)에 따르면, 불어의 법체계는 세 가지 차원의 시간차단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짜여진다.

- 준명사법(quasi-nominal): -er, -ant, -é ;
- 접속법(subjonctif): que je march-e ;
- 직설법(indicatif): je march-e, tu march-es ;

여기서 자세한 논의는 삼가고, 불어의 접속법 형태에 견줄 수 있는 한국어의 문법형태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불어의 접속법 형태에 대해 한국어에는 그러한 것이 표현되는 기재가 없는 것으로 기술되어 온 것이 작금의 실태일 것이다. 본고는 그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분포에 입각한 어미 분석을 통해, 한국어의 다음의 어미류에 속하는 것들—{(으)냐, (ㄴ)는)다, 자, (으)라, (으)려}—은 불어의 접속법과 견줄 수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접속법 어미—한국어문법의 현실까지 고려한다면 인용·접속법 어미—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러한 근거로는 이러한 형태가 전체 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동일하다는 점과 그 의미기능의 유사성을 들 수 있겠다. 다음을 비교해 보자. (23, 24)에서 보듯이, 불어에서 2인칭의 직접 명령이나 3인칭 명령이 접속법의 형태로 실현되듯이, 한국어에서도 ‘-(으)어)라’, ‘-다’ 형을 통해 그 명령의 기능이 표현되고 있다.

(23) a. Sois sage!

b. Qu'elle soit rentrée!

(24) a. 암전히 있어라!

b.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c. 자 연병장 열 바퀴씩 돈다. 바로 실시.

감탄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여준다.

- (25) a. 아휴, 추워라
b. 야, 저 여자 죽인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어의 접속법이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된다는 것이 아니라, 불어의 접속법과 한국어 어미 중 ‘(으)냐, (니)는’ 다, 자, (으)라, (으)려’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토대를 찾아낼 때 그 근거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찾아진 것이냐 라는 점이다. 우리는 각 형태의 분포와 전체 체계 내에서의 위치만을 고려하여 그러한 결론점에 다다른 것이다. 이 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바이다.

2.2. 유형론(typologie)에서 위상학(topologie)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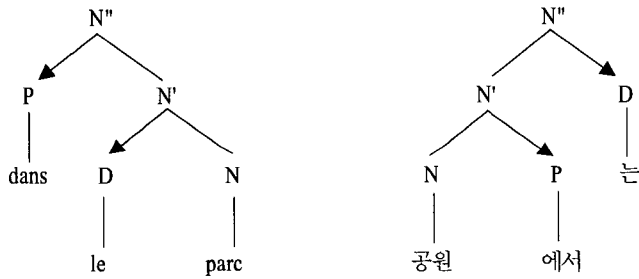
이상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유형론에서 굴절어와 교착어로 각각 분류되던 불어와 한국어의 문법요소들을 중심으로 어떤 요소와 요소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분포’와 ‘형태분석’에 입각하여 따져 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그 두 언어를 유형(typus)은 같고 위상(topos)은 다른 언어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국어와 불어는 전통 유형론적으로는 표면적으로 다르더라도, 위상학적으로는 동일한 구조를 가졌다. 즉 형태-통사적 구성의 측면에서 동형성(isomorphisme)을 유지한다. 불어는 ‘교착적 굴절어’라고 한다면,¹³⁾

13) 여기서 Bally(1952:32)의 내용을 인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불어가 야만어이고 여기 언어학자가 여행한다면, 그 언어학자는 불어의 j'aime, tu aimes, il aime 따위의 말에서, 대명사 없는 동사만의 어형변화(paradigme)를 복원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아마 불어에서 교착의 경향(une tendance à l'agglutination)이 있다고 할 것이다.” 불어학자 Bally는 분명 굴절어 불어의 교착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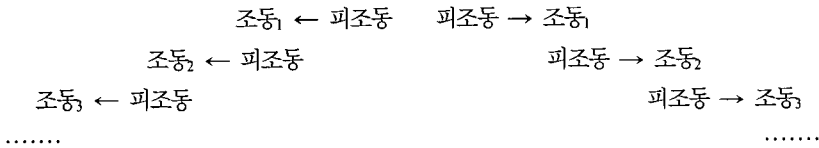
한국어는 ‘굴절적 교착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불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요소들의 대응 양상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명사의 차원>



<동사의 차원 1>



<동사의 차원 2>

- {tu = -어?/니?} → {je = -어}
- {-ez = -어요?} → {-ons = -어요}
- {toi = 너} → {moi = 나}
- {vous = -시} → {nous = 저}

이다. 이는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필자의 독단적 분석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3. 결론과 회갑치기

한국어의 본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한국어 연구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자체로 파고들어 자신만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캐내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밖으로 향한 문을 열어두고 열린 자세로 계통적으로나 유형론적으로나 다른 언어를 거울삼아 자신을 비추어보는 작업 또한 매우 중요하다. 사실을 애써 밝혀보고자 했다. 단순하게 한국어를 교착어로, 붙어붙어 굴절어로 단정 짓는 행위 또는 그것에 기반한 논의를 반성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경계하자고 제안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우리 말 한국어 이해의 깊이를 더 깊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다.

폐쇄성/개방성, 닫힌구조/열린구조, 순수/잡종, 중심/주변, 남성성/여성성, 수목형 구조/리좀형 구조 등의 이분법적 사유 체계를 둘러싼 인문학적 논의를 우리 언어학계에도 적극 수용한다면, (한)국어학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재배치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한)국어학의 울타리를 허물고 보편성을 향하여 문을 열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어의 보편 구조를 통해 서구어를 재인식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로 논의를 정리할 수 있겠다. 자칫 잘못하면,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의 제국주의적 언어유형론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한국어를 중심에다 갖다 놓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그 이유는 특별한 사람 몇몇을 제외하고, 우리 한국의 언어학자들의 사유체계는 어차피 한국어의 프리즘을 통과하고 있으므로.

인용문헌

- 구현정, 「한국어 ‘주다’류 동사의 문법화 양상」, 『언어학』 37, 한국언어학회, 2003.
 목정수, 「격조사 교체 현상에 대한 통사·의미적 논의의 재검토: 조사류의 새로운 질서를 토대로」, 『언어정보』 2, 고려대학교 언어정보 연구소, 1998.

- 목정수, 「정감적 의미와 형태 분석: 청자지시 요소 {아} 분석을 위하여」, 『한국어학』 10, 한국어학회, 1999.
- 목정수, 「소쉬르와 기음: 시간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31, 한국프랑스학회, 2000.
- 목정수, 『한국어 문법론: 비교론적 시각에서 본 조사와 어미의 형태·통사론』, 도서출판 월인, 2003.
- 목정수·유현조, 「보조동사 ‘-(어) 주다’의 통사적 특성과 기능: 여격 첨사로서의 가능성」, 한국어언어학회 겨울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3.
- 목정수, 『한국어 조사 {의}의 문법적 지위와 의미 기능에 대하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출간예정.
- 시정곤, 『수정관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한국문화사, 1998.
- 시정곤, 「명사성 불구어근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한국어학』 14, 한국어학회, 2002.
- 이익섭·이상억·채완,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1997.
- 임홍빈,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어학연구』 25-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89.
- 임홍빈, 「어 굴절의 원리적 성격과 재구조화」, 『관어문연구』 2, 1997.
- 전성기, 「역과 이중어사전」, 한국사전학회 제2회 학술대회 특강 자료, 2002.
- 허웅, 『국어학-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1983.
- 홍재성, 「한국어의 구조: 유형론적 특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9.
- Bally, Ch., *Le langage et la vie*, Geneva, 1952.
- Blanche-Benveniste, C. et al, *Pronom et Syntaxe: L'approche pronominale et son application au français*, Société d'Etudes Linguistiques et Anthropologiques de France, 1984.
- Blanche-Benveniste, C. et al, *Le Français Parlé: Etudes grammaticale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Paris, 1990.
- Burke, D., *Street French 1: the Best of French slang*, John Wiley & Sons, Inc., 1996.
- Comrie, B, S. Matthews and M. Polinsky, *The Atlas of languages*, Facts On File, Inc., 1996.
- Derrida, J., *De la grammatologie*, Les Editions de Minuit, 1967.
- Guillaume, G., *Temps et Verbe*, Librairie Honoré Champion, Paris, 1929.
- Radford, A.,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 참고자료: *The Atlas of Languages*에서 인용한 다음 두 자료는 영어로 달아놓은 각주를 통해 볼 때와 이를 한국어의 각주를 통해 볼 때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Focus Construction in Tagalog

Tagalog (also known as Pilipino) is one of the largest languages of the Philippines and its national language. In Tagalog the PREDICATE, which occurs at the beginning of a clause, can be followed by one or more nouns; one of the nouns is preceded by the particle *ang*, and this noun is the topic of the sentence (the information component that the sentence is about). Depending on the noun chosen as topic, the verb also changes its form. There are several possible ways of representing the situation "The woman will give the rice to the child" (the topic of each sentence is in **bold**)

mag-bibigay **ang** **babae** ng bigas sa bata
AGENT TOPIC-will give TOPIC woman ARTICLE rice to child
"The woman will give rice to the child."

i-bibigay ng babae **ang** **bigas** sa bata
OBJECT TOPIC-will give ARTICLE woman TOPIC rice to child
"The rice, the woman will give it to the child."

ibigy-an ng babae na bigas **ang** **bata**
OBJECT TOPIC-will give ARTICLE woman ARTICLE rice TOPIC child
"The child, the woman will give him/her the rice."
("The child will be given the rice by the woman.")

◇ Word Order와 관련하여

There are many aspects of the grammar of native American languages which help to distinguish them from one another; just a few instances will demonstrate their diversity, beginning with the ordering of words within sentences.

Greenlandic (Eskimo-Aleut)

Greenlandic is a dialect of the Inuit language spoken in Greenland. As can be seen from the example below, Greenlandic syntax is quite different from English, in fact, it is more similar to that of Japanese, a completely unrelated language, in which the main verb appears at the end of the sentence. Greenlandic, and Inuktitut more generally, does not make use of prepositions but, rather, marks the object with a suffix, much as in Classical Latin:

Subject	Object	Verb
<i>tigianiaq</i>	<i>iglu-mut</i>	<i>pisug-pug</i>
fox	house-to	go-(past)

"The fox went to the house."

Object	Verb
<i>tigianiaq</i>	<i>tukuvaa</i>
fox	see-he

"He saw the fox."

Such grammatical choices divide the world's languages up into various groups and cut across territorial or familial boundaries.

[Abstract]

**A Critical Review of Language Typology: for the subjecthood of
Korean linguistics**

Jungsoo Mok
(University of Seoul)

Korean linguistics or linguistics in Korea has the viviparous limitation that on the one hand, it was influxed from Europe and Japan and on the other hand, these days the American linguistics takes the initiative in Korea. That's why Korean linguistics cannot be free of the problems of 'dependence/independence', 'central/marginal', etc.

It calls for two conditions to study the nature of Korean itself and to establish the independence of Korean linguistics in this situation. The first condition is that we should reveal some peculiarities of Korean in itself. The second condition is that we should reveal universals of Korean by comparing it objectively with other languages which are typologically and genealogically different. I think the first is important but the latter is more important.

To meet the second condition, we analysed the expansion structure of NP in Korean and French, and suggested a new tree-diagram for describing equivalently the NP structure of the two languages. As for VP structure, we suggested some possibilities of comparing the final endings in Korean with personal pronouns in French, and of comparing the prefinal ending 'si' in Korean with the second plural pronoun 'vous', etc.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of Korean and French, we came to conclusion that Korean is a inflectional agglutinative language while French is a agglutinative inflectional one. In other words, they are same in 'typus', are different in 'topos'. This may be a surprising/unexpected conclusion. But this, we think, can lead us to

much closer approach to the nature of the two languages Korean and French.

접 수 일 : 2004년 4월 29일

심사기간 : 2004년 5월 1일~20일

재 심 사 : 2004년 5월 30일

게재결정 : 2004년 6월 5일(편집위원회)